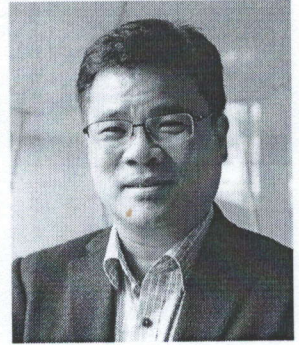


원장 입후보 소견서

문화도시 광주의 100년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동차공장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광주의 100년 또는 200년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빛나는 도시 광주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수많은 선진도시들을 보면 경제적인 선택이나 산업적인 선택을 한 도시들은 어느 정도 도시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 경쟁환경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쇠락의 길로 가는 사례를 여러 도시에서 목격했습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해주는 힘은 문화의 힘에서 비롯합니다.

문화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끈을 이어주며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도록 지속되고 오래도록 기억되며 오래도록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자동차공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마인드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광주의 중심은 우리 서구입니다. 서구의 문화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어떤 가치로 확산시키는데 따라 광주의 문화적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위해 그동안 다음과 같은 책을 출판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구전설화(2005), 광주의 민속 및 놀이문화(2006), 광주전남근현대미술총서(2010) 등에 참여했고, 양림동 근대문화 유산의 표정(2011), 광주문화재 이야기(2011), 무등산이 된 화가 허백련.오지호(20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향한 도시+문화+경영(2014), 광주를 살리는 메세나운동(2014), 광주 여성운동사(2015), 광주의 옛길과 새길(2015), 공공미술, 광주에 옷을 입히다(2015), 산 좋고 물 맑으니-광주의 정자(2016), 色 다른 모양 풀 다른 이야기(2017) 등을 통해 꾸준히 광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도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6개에서 12개로 크게 늘렸으며 진성 회원 수도 10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시작한 정기후원금을 내는 후원 회원도 현재 5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내년 말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문화원을 확장 이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서구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기수로서 역량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그 일은 원장의 리더십과 이사님들의 해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제7대 서구문화원장 입후보자 정인서